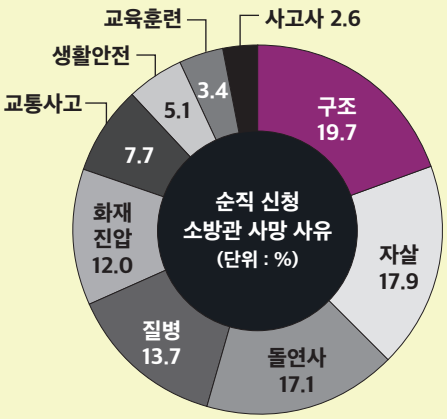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히어로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속 소방관의 노동환경

글 편집실

행복한 시간으로 시간여행이 가능한 초능력을 가진 소방관 복귀주(장기용)는 어느 날 사고를 겪는다. 딸이 태어난 날, 자신을 대신해 출동한 동료가 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휩싸여 순직한 것이다. 그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던 복귀주는 죽은 동료를 구하기 위해 과거를 헤맨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차 사고로 인해 아내가 죽고, 딸과는 단절된다. 우울증에 빠진 복귀주는 결국 타입슬립 초능력마저 잃고 만다.

이처럼 소방관은 동료의 죽음과 참혹한 인명 피해를 자주 마주하게 된다. 화재나 재난 현장에 주로 투입되다 보니 전체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질병 발생 비율이 유독 높다. 특히 유해물질로 인한 호흡기질환, 연기에 의한 화상,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적 질환 등이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14년간 동결된 간병비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공상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 등 소방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여전히 열악하다. 이에 따라 소방관들의 진료 지원 시스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료 : 박완수 전 국회의원 의원실(현 경남지사)·서울신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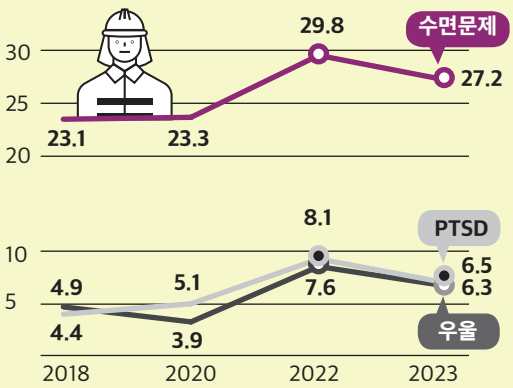
소방관이 짊어진 삶의 무게

화재진압 소방관이 입는 방화복과 각종 장비들의 무게를 합하면 약 25kg에 달한다. 관절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 무게인데, 500℃ 이상의 화재 현장에서 방화복 내부 온도는 50℃ 이상을 기록한다. 여기에 폭염이 더해지면 탈진의 위험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위험요소는 이뿐이 아니다. 유해성 가스나 분진을 흡입하는 일이 잦아 폐결핵 등 호흡기질환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소방청 특수건강진단 자료를 살펴보면, 소방관 10명 중 7명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겪는 질병은 폐결핵과 난청으로, 현장에서 유해성 가스나 분진을 흡입할뿐더러, 장기간 출동해 사이렌 등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소방관이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되는 간병비는 2009년부터 14년간 동결되었다. 2024년이 되어서야 희소식이 들렸는데, 정부는 간병비를 하루 최대 15만 원 이내로 인상해 실비를 지급하고, 진료비 상한액은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올해 3월 말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3년마다 고시하던 지원액을 의료수가·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매년 새롭게 정하면서 소방관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됐다.

소방공무원 주요 질환 비율 (단위 : %)



자료 : 소방청

정신건강 울리는 비상벨

소방관은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목숨을 구하는 '영웅'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육체적 고충만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방관의 수도 점점 늘어나는 중이다. 소방청이 2023년 실시한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관 중 10명 중 4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수면장애, 우울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소방관이 출동벨 소리에 심장이 쿵쿵거리는 등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 더불어 자살 고위험군 비율이 4.9%로, '지난 1년간 1회 이상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생각했다'라고 답변한 소방대원이 8.5%에 달했다. 하지만 트라우마에 대처하고 적응 치료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소방관의 건강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정신건강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소방관의 생명을 담보하는 필수지원 장비 지원 등 소방관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방관이 더욱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국민의 '히어로'가 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처우 개선이 되기를 기대한다.